

노래로, 게임으로...미래세대 눈높이 맞춰 광주정신 알리기



<2> 오월정신 씨앗 뿌리는 교사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 계승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광주지역 교사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들 교육에 신경 쓰는 것도 '5월의 씨앗'이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이들 눈 높이에 맞춰 5월 정신을 알리야 "어린 아이들 스스로 5·18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교육 방법인 '오일팔.com',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 '민주시민교육 교류 수업'을 제안하고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는 광주 운암초교 이해중(39) 교사는 5·18 교육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올해로 교사생활 12년째인 그는 지난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탈출게임'을 활용해 '오일팔.com'이라는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5·18 현장을 방문할때마다 설명만 들으며 따라다니는 것 보다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졌다.

그가 제안한 방탈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국에서 2만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해 즐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프로그램을 접한 이들 상당수가 '5·18에 대해 더 많이 알고싶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올해는 또 다른 시도를 했다. 아이들이 5·18 수업을 들은 뒤 느낌을 서로 적도록 하고 노래까지 만드는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라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학생들이 1600편의 시를 썼고 이들 가운데

학생 관점에서 5·18 얘기할 수 있게 '시, 노래가 되다' 5·18 수업 효과 방탈출게임 활용 교육은 전국 전파 왜곡·편향 글을 인정교과서 집필 산재된 5·18자료 모으기 앞장도

30여편의 노래가 만들어졌다. 이 교사는 더 나아가 뮤직비디오 만들기 챌린지를 계획중이다.

이 교사는 "5·18 50주년에는 5월 정신이 아이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역할의 선두에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된 5·18 교과서로 왜곡·편향 끊어야 "아이들이 자신을 언어로 5·18을 이야기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영주(41) 광주여교 교사는 지난해 제작된 '5·18 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 집필진이다. 지난 2013년 제작된 5·18중등 인정교과서 이후 두번째 참여였다.

김 교사는 집필진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우선적으로 추려내는 한편, 우리 일상과 연결짓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힘썼다. '5·18은 광주에서만 일어났나요?' '시민들은 왜 충을 들었나요?' '광주사태는 어떻게 민주화운동이 되었나요?' 등 학생들이 5·18에 대해 궁금해 할 법한 질문들로 구성됐다. 두번째 참여라서 그만큼 공을 들였지만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을 담지 못해서 아쉽기만 하다.

김 교사는 5·18의 교육의 구체적인 담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래 세대에게 오월 정신을 계승 해줘야 한다는 거대담론은 많지만,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활용방안 등의 실제적인 교육 담론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날' 재현하는 학생들 광주 동명고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학교에 '오월의 길'을 조성해 전시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5·18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 '라이프 캐스팅 기법'을 이용한 전신상과 오브제를 만들어 시연하고 있다. 특수분장의 허나인 라이프 캐스팅 기법은 살아있는 인체에 테이프를 이용, 형태를 그대로 복사해 내는 제작 기법이다. <동명고 제공>

김 교사는 "미래세대와 5·18를 통해 민주주의·인권·소수자·국가폭력·시민의 역할 등 현대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직도 흩어진 자료 많은 5·18자료 한데 모아 "광주에 있는 교사들이라면 매년 올해 5·18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에 빠집니다."

극락초 백성동(33) 교사는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5·18에 대한 활동은 그누구 못지 않았다.

해마다 5월이 되면 국립5·18민주묘지 해설사로 활동해온 백 교사는 지난 3일 전교조 참교육실 동료교사들과 함께 '오일팔수업.com' 사이트를 개설 했다.

그동안 제작되는 5·18교육 자료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5·18 교육자료 찾기에 고민에 빠진 다른 교사들을 돕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료를 소개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백 교사는 광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자 교사로서 5·18 교육이 막연했다고 한다. 5·18수업 자료들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 교사가 올해 교사들과 교육공동체를 꾸려 5·18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나선 이유다.

오일팔수업.com 사이트에는 5·18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영상과 그림책, 민주시민교육자료 뿐만 아니라 사이버매장 공간도 마련했다.

과거의 자료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의 문제에 5·18의 고민을 녹여내는 작업도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오일 광주, 미안마와 눈 맞추다'는 주제로 80년 5월 광주와 닮은꼴인 미안마의 연대를 추진한다.

백 교사는 지난해 근거 없는 논리로 5·18에 대한 왜곡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가짜 광주청년의 행태에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해 '오일팔[5.18]TV'에 올려 6만6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백 교사는 "미래세대에게 오월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5·18 이후 돌아가신 민족·민주 열사의 묘역에 잠들어 있는 구 묘역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5·18 교육주간 운영

18~20일 사이버기념관·계기 수업 등 온·오프라인 다채로운 기념사업 추진

광주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오는 18~27일 교육주간을 운영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회 주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수막 게시, 계기 수업, 주먹밥 급식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가운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학교 표준운영비에 관련 예산을 의무 편성토록 했고, 최소 2시간 이상의 계기 수업을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5·18 계기 교육 및 체험학습 보안을 위해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광주MBC와 공동으로 '랜선 오월길'을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인문·사회 교과 중심으로 이뤄지는 5·18 교육을 넘어 다양한 교과 및 로봇 교육 등을 융합한 미래지향적 5·18 수업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일 수완하나중학교에서 시범수업을 통해 첫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5·18 관련 학업 중단자에 대한 명예졸업장도 수여하고 오는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5·18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 채택도 추진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채무 갈등 여성 살해 야산 유기 광주북부경찰, 40대 영장 신청

광주 북부경찰은 11일 빛을 받으려 온 40대 여성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 전북 남원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인 B씨 어머니에게 2000여만 원을 빌린 뒤 상당 기간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B씨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 간다고 A씨에게 간다며 가족들에게 알리고 집을 나선 뒤 오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피해학생은 운동 그만두고 합의도 안됐는데 후배 괴롭힌 선배 점유...관대한 판결 지적

학교 운동부 후배를 괴롭힌 선배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피해 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오랫동안 해운 스포츠를 그만둔 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가해 학생과 피해자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 판결이 관대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병원 치료 뒤 야구부 기숙사로 늦게 복귀했다며 다른 후배의 손을 빌려 B씨를 수 차례 때리는가 하면, 급식실에서 다른 후배의 손을 이용해 식사를 하려던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야구부 후배인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형(刑)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장난으로 때렸다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학생은 야구생활을 그만두고 전학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A씨는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데, 나이가 어린 점 등을 반영해 양측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거문도, 싼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매매 - 평당 30만원씩

거문도 별장 주택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221평, 건물 21평
- ▶ 방 2, 화 2, 거실, 주방
- ▶ 바닷가 최고 전망
- ▶ 텃밭, 정자, 내부시설
- ▶ 매매 - 2억2000만원